

“함께 수행하는 황혼이 아름답다” ‘도다가’ 공동체 마을 7월 착공

강화도 무애원 부지에 ... 내년 6월 완공

재가 수행공동체 마을이 고계 최 초로 강화도에 세워진다. 도다가어들은 영혼의 소리를 내는 곳 마을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남지심, 이화 설립추진위는 6일 인천 강화도 무애원 부지 5천여 평에 수행 공동체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도다가 마을에는 총 4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빌라형 복합건물, 전원주택, 60여 평의 법당, 선방, 경전 연구실, 도자기 작업실, 찻집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진다.

설립추진위는 이를 위해 무애원 수련원을 개·보수하고, 주거공간과 부대시설 공사를 올 7월말에 착공해 내년 6월경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김종서(서울대 명예교수), 공종원(불교언론인회장), 이남덕(전 이화여대 교수) 등 6인의 발기인을 포함, 총 10세대가 입주 의사를 밝혔다. 건립 재원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될 도다가 마을은 수행의 생활화 프로그램 운영도 구상하고 있다.

수행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 제를 위한 수행 프로그램으로는 조식예불을 비롯해 참선, 경전 공부 등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또 주말 수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공양법

빌라·전원주택건립 40여 세대 입주 법당·선방·경전연구실 등 부대시설

등도 선별할 계획이다. 자체 수익 창출 사업을 위해 불교 상품 및 유기농산물 판매, 도자기 만



◁재가수행공동체 ‘도다가마을’ 조감도.

들기 체험 교실과 찻집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수익금 전액은 공동체 운영비로 총당하며, 재정은 주민협의

구발표회를 도다가 마을에서 수시로 개최, 재가불교 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전원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남지심 설립추진위원장은 “재가 불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노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다가 마을을 수행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문의 (02) 704-3577 (hwayeon.org)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경북지역 종교계 화합분위기

가톨릭 대구대교구 등서 봉축메시지

대구지역 불교계와 가톨릭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가톨릭 대구 대교구 최영수 보좌 주교는 7일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예방하고 지역 가톨릭계를 대표해 봉축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문희 대주교는 ‘이세상 사람들이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3일 동화사에 보내왔다.

이어 경북 철곡 신동성당의 허성

준신부가 8일 조계종 망월사(주지 동진)를 방문하고, 대구 수성구 고산성당의 정홍규 신부는 대구시 남구 앞산 은적사(주지 허운)를 방문해 각각 불기2547년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평가받았던 대구지역 종교계에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례적인 화합 분위기가 조성돼 지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박원구 기자



◁삼광사지관전에서 6·7일 공연된 연극 심청전.

삼광사 심청전 공연 감동의 무대

“아버지의 눈만 뜨게 할 수 있다면 내 두 눈과 목숨이라도 바치오리다.” 호녀 심청의 눈물어린 기도에도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을 가득 채운 불자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삼광사가 기획하고 부산연극인협회의 배우들이 열연한 ‘연극 심청전’이 6일, 7일 불자들에게 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심청전’은 불교 사상으로 새롭게 각색된 줄거

리와 무대장치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대구에 효심의 집 개관

노인복지시설 ‘효심의 집’이 3일 개관식을 가졌다. 대구 속천동 효심사(주지 정법) 효심의 집은 연건평 300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00여명이 이상의 지역노인들이 민생생활과 요양,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노인쉼터이다. 박원구 기자

4백여 사부대중 3천배 철야정진

통도사 부산포교원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상진)은 3일 부산역 광장에서 3천배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총무국장 산웅, 통도사 선원장 전진,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 상진 스님을 비롯 4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철야정진기도는 8시 40분경 시작됐다.

목탁소리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철하기’가 이어지면서 부산

회(상리초등6)와 함께 나란히 참석해 1080배를 회향했다. 사부대중들의 뜻과 정성으로 봉행된 정진의 목탁소리는 아침 6시에야 멈추었다.

현문스님은 “절을 하는 것을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하심의 마음은 대발원, 대원력을 성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천미희 기자



◁3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3천배 철야정진에는 4백여 불자가 동참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게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지하철 참사 유가족돕기

자비의 탁발행사 열려

내원정사(주지 정원) 유지원 원아 12명이 3일 부산 서면 일대에서 작은 목탁을 두드리며 탁발을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탁발된 240여만원

은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

티베트 전통음악회 열려

3일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주지 정정)에서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

왕계족 초청 산사음악회 ‘갓바위 부처님’과 함께 하는 평화의 어울림’이 지역 시민과 불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본사에서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구 기자

비국도 직원 자비의 헌혈

사회복지법인 비국도(대표이사 정관)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헌혈을 통한 자비 실천에 나섰다. 2일 개금복지관, 양정정소년수련관, 영주암, 용호복지관에서 진행된

비국도 직원 자비의 헌혈 행사에서는 비국도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해 수혈을 애타게 기다리는 백혈병·심장병 어린이들에게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헌혈 행사에는 1백 50여명의 지역 주민들도 동참해 비국도 직원들의 자비행에 뜻을 보탤었다. 천미희 기자

비슬산 유가사 석조여래좌상

대구시 유형문화재

비슬산 유가사의 석조여래좌상이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고시됐다. 대구시는 1일 달성군 유가면 양동 유가사 석조여래좌상을 유형문화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 50호 비슬산 유가사 석조여래좌상은 불상의 앞면과 양 무릎에 보수한 흔적이 남아있지만 비교적 옛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유가사 불상은 특히 형태 면에서 불상의 어깨가 좁아지고 가슴의 탄력이 감소되는 특징과 함께 방향의 대좌가 10세기 이후의 유행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불상 연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박원구 기자

“맛있는 비빔밥 드세요”

무차만발공양행사

“맛있는 비빔밥 드시고 가세요.” 부산시내 사찰의 합창단원 30여명은 3일 앞치마를 두르고 비빔밥

그릇을 든 채 노숙자, 노인들을 향해 연신 손짓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백대일)가 스님들의 도움과 연합회의 재정을 털어 부산역 광장에서 실시한 무차만발공양행사는 2천 그릇이 넘는 비빔밥이 제공됐다. 천미희 기자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수정정보완본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정확한 책으로 3년에 걸쳐 검증되고 있습니다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드립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 「易」, 「神示」라고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배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알아 묻고 들어서는 사람(전화 온)에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알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선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男-女 관계인지 二男-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음식 먹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습(천도·시식·굿·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기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가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안나 사람이 울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등 등 인간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秘訣)

찾아온 시간이나 떠난 시간만 알고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론이나, 주역이나, 허락이나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啓)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머지않아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추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시 선거 구체 취직 승진 매에 입신 기술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妙)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바인더채트 분개 매월 每一式
 ■ 활인전론천역자음 ● 기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을 소지하신 분은 80만원에 본 책과 교환해 드립니다. ● 호사 육임강의록(증보上下권) ₩41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정보완본 CD ₩2,000,000 ● 호사 육임비디오 ₩900,000 (28개)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